

세계성찬주일

사랑으로 살아가다: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클라우드 리어리 목사(중앙, 아이를 안고 있는)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 캠프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사진 제공: 클라우드 리어리

히브리서 1:1-4; 2:5-12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개척자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 나이다”(시편 8:4-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특별히 연합감리교인들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분을 닮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하시며 서로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의 마음을 함양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 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재능은 전쟁과 가난의 짐에 묻혀 버립니다. 타

인의 삶을, 특히 다른 대륙에 사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리어리가 떠오릅니다. 클라우드 리어리는 르완다 마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몇 안 되는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르완다 국립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내전이 르완다를 휩쓸었고 끔찍한 대량 학살 이어졌습니다. 르완다를 떠나 몇몇 난민 캠프에서 몇 년 동안 살아야 했던 그녀는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르완다의 대량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교단으로서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과 같은 자원 덕분에 클라우드 리어리는 고난과 고통을 딛고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클라우드 리어리는 세계성찬주일 헌금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리어리 목사는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에서 개발 담당 이사

로 일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및 옹호 활동을 위해 그녀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의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더십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그녀가 섬기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고난과 고통을 넘어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는 젊은 지도자들과 동행하며 교육을 통해 그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장학금은 장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드러냅니다.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교파를 넘어 함께 둘러앉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며 완전한 사랑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